



역행렬과 행렬식의 응용

성균관대학교 행렬이론 연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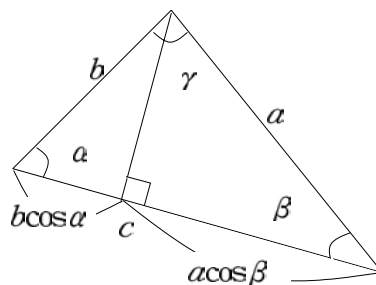
지도교수 : 이 상 구

(I) 역행렬의 응용

역행렬을 이용하여 실제 응용문제를 연립방정식으로 만들어 해결하는 예를 살펴보자.

【예 1】 연립 일차방정식을 이용하여 코사인법칙을 유도해보자.

$$\begin{aligned} c(\cos\beta) + b(\cos\gamma) &= a \\ c(\cos\alpha) + a(\cos\gamma) &= b \\ b(\cos\alpha) + a(\cos\beta) &= c \end{aligned}$$



세 변 a, b, c 와 마주보는 각(opposite angles) α, β, γ 를 갖는 위의 삼각형을 생각하자. 그러면 삼각비의 정의에 의해 위의 세 식을 얻는다.

이 식으로부터 $\cos\alpha, \cos\beta, \cos\gamma$ 를 구해보자. 우선 행렬을 이용한

연립일차방정식 $AX=B$ 를 만들고 $A=\begin{bmatrix} 0 & c & b \\ c & 0 & a \\ b & a & 0 \end{bmatrix}$ 의 역행렬을 구한다.

행렬 A 의 행렬식은 $2abc$ 이므로, a, b, c 모두가 0이 아니라면 A 는 역행렬을 갖는다. (a, b, c 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이므로 모두 0은 아니다.) 따라서

$$X=\begin{bmatrix} \cos\alpha \\ \cos\beta \\ \cos\gamma \end{bmatrix}, B=\begin{bmatrix} a \\ b \\ c \end{bmatrix}, A^{-1}=\frac{1}{2abc}\begin{bmatrix} -a^2 & ab & ac \\ ab & -b^2 & bc \\ ac & bc & -c^2 \end{bmatrix}$$

이고 $X=A^{-1}B$ 이므로

$$\cos\alpha=\frac{-a^3+ab^2+ac^2}{2abc}=\frac{b^2+c^2-a^2}{2bc} \text{ 를 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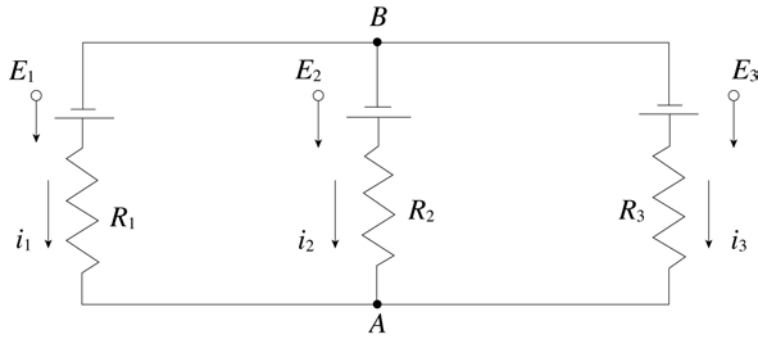
$\cos\beta$ 와 $\cos\gamma$ 도 같은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

[참고] 주소 http://matrix.skku.ac.kr/sglee/java/linear_eqn.html에서 연립방정식을 풀어보세요!

【예 2】 아래의 간단한 전기회로 다이어그램을 보자.

전지나 발전기에서 만들어내는 전압을 E_1, E_2, E_3 로 저항을 R_1, R_2, R_3 로 표시하자. 저항은 전기에너지를 열로 바꾸어 준다. 실제로, 전열기나 오븐은 저항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회로상의 각 경로에 흐르는 전류의 양을 i_1, i_2, i_3 로 나타내자. 전압은 볼트로, 저항은 오옴(ohms)으로 측정한다. 전류는 암페어로 측정하는데, 전류가 화살표의 반대방향으로 흐르면 그 전류는 음의 값을 갖는다. 전압과 저항이 주어질 때, 전류의 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Kirchhoff의 법칙을 이용한다.

- (1) 회로의 각 경로가 만나는 교점(junction)에서의 전류의 합은 0이다.
(다시 말하자면, 교점으로 흘러 들어오는 모든 전류는 모두 다시 흘러 나가게 된다.)
- (2) 전체 회로의 각각의 닫힌 경로에서는 경로상의 전압 E_i 들의 합과 저항 R_i 들의 합은 항상 같다.



전류 i_1, i_2, i_3 는 모두 교점 A 로 흘러 들어오므로, 첫 번째 법칙에 의해 $i_1 + i_2 + i_3 = 0$ 을 얻는다. 이 첫 번째 법칙을 교점 B 에 적용해도 같은 식을 얻는다.

그림에서 첫 번째 닫힌(closed) 회로를 시계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 전압의 합은 $E_2 - E_1$, 저항의 합은 $R_2 i_2 - R_1 i_1$ 이 되므로, 두 번째 법칙에 의하여, $-R_1 i_1 + R_2 i_2 = E_2 - E_1$. 마찬가지로 두 번째 닫힌(closed) 회로에서 $-R_2 i_2 + R_3 i_3 = E_3 - E_2$ 을 얻는다.

이렇게 얻은 세 방정식

$$\begin{aligned} i_1 + i_2 + i_3 &= 0 \\ -R_1 i_1 + R_2 i_2 &= E_2 - E_1 \\ -R_2 i_2 + R_3 i_3 &= E_3 - E_2 \end{aligned}$$

을 행렬로 나타내면

$$\begin{bmatrix} 1 & 1 & 1 \\ -R_1 & R_2 & 0 \\ 0 & -R_2 & R_3 \end{bmatrix} \begin{bmatrix} i_1 \\ i_2 \\ i_3 \end{bmatrix} = \begin{bmatrix} 0 \\ E_2 - E_1 \\ E_3 - E_2 \end{bmatr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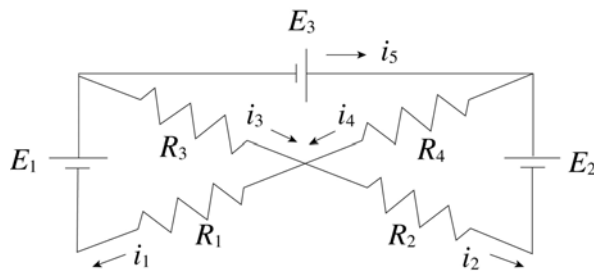
이 되고 간단한 계산을 하여

$$\begin{bmatrix} 1 & 1 & 1 \\ -R_1 & R_2 & 0 \\ 0 & -R_2 & R_3 \end{bmatrix}^{-1} = \frac{1}{R_1 R_2 + R_1 R_3 + R_2 R_3} \begin{bmatrix} R_2 R_3 & -R_2 - R_3 & -R_2 \\ R_1 R_3 & R_3 & -R_1 \\ R_1 R_2 & R_2 & R_1 + R_2 \end{bmatrix}$$

을 얻는다. 따라서 예 6과 같은 방법으로 주어진 저항 R_i 들과 전압

E_i 들로 각 경로의 전류 각각의 i_1, i_2, i_3 를 표시할 수 있다.

문제 1 질량 m_1, m_2, m_3 를 갖는 세 물체가 차례로 세 점 $(-1, 1)$, $(-1, -1)$, $(2, 1)$ 에 놓여 있다. 이 경우 무게 중심이 $(0, 0)$ 이고 각 질량의 합이 1 일 때, m_1, m_2, m_3 를 구하기 위한 연립일차방정식을 구하여라.



Calculus Web

문제 2 아래 그림과 같은 전기회로에 Kirchhoff의 법칙을 적용하면 다음 방정식들을 얻는다.

$$\begin{array}{rcl}
 i_1 & -i_3 & -i_5 = 0 \\
 i_2 & & -i_4 + i_5 = 0 \\
 R_1 i_1 & + R_3 i_3 & = E_1 \\
 R_2 i_2 & + R_4 i_4 & = E_2 \\
 & -R_3 i_3 + R_4 i_4 & = E_3
 \end{array}$$

여기에서 아래 행렬표현을 유도하여라.

$$\begin{bmatrix} R_1 + R_3 & 0 & R_1 \\ 0 & R_2 + R_4 & -R_2 \\ -R_3 & R_4 & 0 \end{bmatrix} \begin{bmatrix} i_3 \\ i_4 \\ i_5 \end{bmatrix} = \begin{bmatrix} E_1 \\ E_2 \\ E_3 \end{bmatrix}$$

[참고] 주소 http://matrix.skku.ac.kr/sglee/java/linear_eqn.html 의 도구를 이용하여 연립방정식을 풀어보세요! 계속하여 새로운 도구와 링크, 정리의 증명과 문제의 답에 대한 정보는 <http://matrix.skku.ac.kr/calculus> 에 추가된답니다.

[참고]: 예습으로 행렬 $A = \begin{bmatrix} 1 & 0 & -2 \\ 3 & 1 & 4 \\ 5 & 2 & -3 \end{bmatrix}$ 의 \det 와 $\text{adj}(A) = C$ 를 아래와 같이 구

했다. 다음 장에서는 연립방정식을 푸는 새로운 방법을 학습한다.

(II) 행렬식의 응용

행렬식의 응용

행렬식의 기원은 연립일차방정식 $\begin{cases} a_1x + b_1y = c_1 \\ a_2x + b_2y = c_2 \end{cases}$ 에서 $a_1b_2 - b_1a_2 \neq 0$ 이면 언제나 유일한 해가 존재한다는 것과 그 근이

$$x = \frac{c_1b_2 - b_1c_2}{a_1b_2 - b_1a_2}, \quad y = \frac{a_1c_2 - c_1a_2}{a_1b_2 - b_1a_2}$$

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행렬식의 개념을 처음 발표한 것은 1683년 일본인 Seki Kowa이며 행렬식을 이용한 연립방정식의 해법을 처음으로 공포한 것은 1750년 Cramer이다.

행렬식의 어원 『determinant』는 가우스의 정수론에서 해의 존재성에 대한 판별식의 의미로 사용된 것에서 유래된 것이고, 현재의 의미로 사용되는 행렬식이란 말은 Cauchy(1789-1857)가 1815년에 처음으로 사용하였으며, 행렬의 이론은 행렬식보다 상당히 늦은 1845년 케일리(Cayley: 1814-1897)에 의해 짝이 트기 시작하여 오늘날 행렬식의 기호 “|”로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참고: <http://matrix.skku.ac.kr/sglee/SampleLecture-3week/index.htm>]

이제, 행렬식을 이용한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 평면에서 서로 다른 두 점 $(x_1, y_1), (x_2, y_2)$ 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c_1x + c_2y + c_3 = 0$ 은 일

$$\text{차연립방정식 } \begin{cases} c_1x + c_2y + c_3 = 0 \\ c_1x_1 + c_2y_1 + c_3 = 0 \\ c_1x_2 + c_2y_2 + c_3 = 0 \end{cases} \text{을 만족한다.}$$

【예 1】 서로 다른 두 점 $(x_1, y_1), (x_2, y_2)$ 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다음 식을 만족함을 보여라.

$$\begin{vmatrix} x & y & 1 \\ x_1 & y_1 & 1 \\ x_2 & y_2 & 1 \end{vmatrix} = 0$$

풀이 좌변에 $x = x_1, y = y_1$ 또 $x = x_2, y = y_2$ 을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하고, 이 식의 여인자 전개식은 직선의 방정식인

$$x \begin{vmatrix} y_1 & 1 \\ y_2 & 1 \end{vmatrix} + y \begin{vmatrix} x_1 & 1 \\ x_2 & 1 \end{vmatrix} + 1 \begin{vmatrix} x_1 & y_1 \\ x_2 & y_2 \end{vmatrix} = 0$$

이 되므로 위 식은 주어진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

【참고】 예1에서와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세 점 $(x_1, y_1, z_1), (x_2, y_2, z_2), (x_3, y_3, z_3)$ 를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은 행렬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begin{vmatrix} x & y & z & 1 \\ x_1 & y_1 & z_1 & 1 \\ x_2 & y_2 & z_2 & 1 \\ x_3 & y_3 & z_3 & 1 \end{vmatrix} = 0$$

【예 2】 원점과 서로 다른 두 점 $(x_1, y_1), (x_2, y_2)$ 으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면적은 $\frac{1}{2} \begin{vmatrix} x_1 & y_1 \\ x_2 & y_2 \end{vmatrix}$ 임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세 점 $(x_1, y_1),$

$(x_2, y_2), (x_3, y_3)$ 을 지나는 삼각형의 면적은 $\frac{1}{2} \begin{vmatrix} x_1 & y_1 & 1 \\ x_2 & y_2 & 1 \\ x_3 & y_3 & 1 \end{vmatrix}$ 임을 보여

라.

쪽 이 원점과 서로 다른 두 점 $(x_2-x_1, y_2-y_1), (x_3-x_1, y_3-y_1)$ 을
 지나는 삼각형의 면적은 주어진 조건에 의하여 $\frac{1}{2} \begin{vmatrix} x_2-x_1 & y_2-y_1 \\ x_3-x_1 & y_3-y_1 \end{vmatrix}$ 이고
 이 면적은 서로 다른 세 점 $(x_1, y_1), (x_2, y_2), (x_3, y_3)$ 을 지나는 삼각형
 의 점 (x_1, y_1) 을 원점으로 평행이동한 삼각형의 면적이며 이 값은
 $\frac{1}{2} \begin{vmatrix} x_1 & y_1 & 1 \\ x_2 & y_2 & 1 \\ x_3 & y_3 & 1 \end{vmatrix}$ 를 가우스 소거법을 적용하여 세 번째 열을 $[1, 0, 0]^T$
 로 만든 후 여인자 전개를 한 것과 같다.

【예 3】 서로 다른 세 점 $(x_1, y_1), (x_2, y_2), (x_3, y_3)$ 을 지나는 이차
 방정식 $ay+bx^2+cx+d=0$ 을 행렬식을 이용하여 표현하면 다음과 같
 다.

$$\begin{vmatrix} y & x^2 & x & 1 \\ y_1 & x_1^2 & x_1 & 1 \\ y_2 & x_2^2 & x_2 & 1 \\ y_3 & x_3^2 & x_3 & 1 \end{vmatrix} = 0$$

【예 4】 연습문제 (2-1)에서 구한 아래의 행렬식은 Vandermonde 행렬
 식이라고 한다.

$$\begin{vmatrix} 1 & 1 & 1 \\ x_1 & x_2 & x_3 \\ x_1^2 & x_2^2 & x_3^2 \end{vmatrix} = (x_3-x_2)(x_3-x_1)(x_2-x_1)$$

【예 5】 3개의 점을 지나는 2차식도 다음과 같은 행렬식을 이용하여 구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세 점 $(x_1, y_1), (x_2, y_2), (x_3, y_3)$ 을 지나는 2차
 방정식은 다음을 만족한다.

$$\begin{cases} y_1 = c_1 + c_2x_1 + c_3x_1^2 \\ y_2 = c_1 + c_2x_2 + c_3x_2^2 \\ y_3 = c_1 + c_2x_3 + c_3x_3^2 \end{cases}$$

즉,

$$\begin{bmatrix} y_1 \\ y_2 \\ y_3 \end{bmatrix} = \begin{bmatrix} 1 & x_1 & x_2^2 \\ 1 & x_2 & x_2^2 \\ 1 & x_3 & x_3^2 \end{bmatrix} \begin{bmatrix} c_1 \\ c_2 \\ c_3 \end{bmatrix}$$

이므로

$$\begin{bmatrix} c_1 \\ c_2 \\ c_3 \end{bmatrix} = \begin{bmatrix} 1 & x_1 & x_2^2 \\ 1 & x_2 & x_2^2 \\ 1 & x_3 & x_3^2 \end{bmatrix}^{-1} \begin{bmatrix} y_1 \\ y_2 \\ y_3 \end{bmatrix}$$

이다.

$$\begin{vmatrix} 1 & x_1 & x_2^2 \\ 1 & x_2 & x_2^2 \\ 1 & x_3 & x_3^2 \end{vmatrix} = \begin{vmatrix} 1 & 1 & 1 \\ x_1 & x_2 & x_3 \\ x_1^2 & x_2^2 & x_3^2 \end{vmatrix} = (x_3 - x_2)(x_3 - x_1)(x_2 - x_1)$$

이므로 $x_i \neq x_j$ 이면 역행렬이 존재하여 위에서 구한 c_1, c_2, c_3 을 가지고 주어진 세 점을 지나는 이차방정식 $y=c_1+c_2x+c_3x^2$ 을 구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Lagrange Interpolation** 이라 하고 위의 행렬식을 **Vandermonde** 행렬식이라고 한다. (위의 방법은 n 개의 점을 지나는 $n-1$ 차의 다항식을 구하는데도 그대로 이용된다.)

【예 6】 5개의 점 (x_i, y_i) , $i=1,2,3,4,5$ 을 지나는 원추곡선(conic section) $Ax^2+Exy+Cy^2+Lx+Ey+F=0$ 은 다음 식을 만족한다.

$$\begin{vmatrix} x^2 & xy & y^2 & x & y & 1 \\ x_1^2 & x_1 y_1 & y_1^2 & x_1 & y_1 & 1 \\ x_2^2 & x_2 y_2 & y_2^2 & x_2 & y_2 & 1 \\ x_3^2 & x_3 y_3 & y_3^2 & x_3 & y_3 & 1 \\ x_4^2 & x_4 y_4 & y_4^2 & x_4 & y_4 & 1 \\ x_5^2 & x_5 y_5 & y_5^2 & x_5 & y_5 & 1 \end{vmatrix} = 0$$

◎ 성균관대 JAVA를 이용한 행렬의 계산

<http://matrix.skku.ac.kr/newMatrixCal/Test.html>

여러 시행과 보완을 거치며 독창적이고, 외국의 소프트웨어에 의존하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한 아래의 SKKU-JAVA 도구를 개발하여 인터넷에 올려 놓게 되었습니다.

<http://matrix.skku.ac.kr/newMatrixCal/Test.html>

맺는말 :

이제 여러분은 선형대수학에서 배운 행렬과 행렬의 집합, 그 들 사이의 함수에 대한 지식을 사장시키지 않고 실제로 주위에서 만나는 문제를 행렬을 이용해 표현하고 위의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답을 구 할 수 있는 계산 능력은 갖추었습니다.

읽을거리 : 행렬이론의 역사:

<http://matrix.skku.ac.kr/sglee/SampleLecture-3week/index.htm> 행렬의 이용
(수학적모델링): <http://matrix.skku.ac.kr/sglee/LLAAppI/index.html>

성균관대학교 이상구 교수

